

의과대학생의 행복에 관한 인식: Q방법론적 접근

김균무*, 조계화**

I. 서론

행복은 인생의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처럼 행복에 이르는 경험적 인식도 매우 다양할 것이라 생각된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과거보다 물질적인 면에서 풍족해졌으나 “우리가 더 행복해졌는가?”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지 않다.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우울증이 증가하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실은 외적 요인이 행복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¹⁾

의과대학생들은 60% 이상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80%를 웃도는 의과대

학생들이 학업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²⁾ 외국의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의 경우 우울증의 유병률이 12.9%로 일반인보다 높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도도 2.1%로 보고되었다.³⁾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의과대학생과 공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과대학생의 우울증 유병률은 37.8%로 나타났고, 자살생각을 해 본 경험은 13.6%, 자살시도를 한 경험은 1.7%로 외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에서 공과대학생의 우울증 유병률은 15.4%로 의과대학생의 우울증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⁴⁾ 다른 연구에서도 의과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면역을 떨어뜨릴 정도이며,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는 학생이 9.4%에 달했다.^{5,6)} 이렇듯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많다는 기존의 연구는 있으나 의

교신저자: 김균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053-650-4282, emprof@cu.ac.kr

*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1) Diener E, Suh E, Lucas R, et al.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 Bull* 1999 ; 125(2) : 276-302.

2) Saipanish R. Stress among medical students in a Thai medical school. *Med Teach* 2003 ; 25(5) : 502-506.

3) Dahlin M, Joneborg N, Runeson B. Stress and depression among medical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Med Educ* 2005 ; 39 (6): 594-604.

4) 한상수, 이승엽, 최원식 등. 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을 이용한 일부 수도권 의대생과 공대생의 우울증 유병률 및 관련요인. *대한가정의학회 학회지* 2009 ; 30(7) : 539-548.

과대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는 의과대학생의 선발 기준이 성적에 지나친 초점을 두는 반면 코스 선택의 동기에는 비중이 약한 점과 입시위주의 경쟁과 주입식 교육이 의과대학생의 진로 정체감에 대한 갈등을 야기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7,8)}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의과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안녕하지 못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의과대학에서의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보다 더 행복하며, 이전에 선배로부터 상담과 도움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⁹⁾ 다른 선행연구는 50대의 나이 든 의사가 30대의 젊은 의사보다, 일반의가 전문의보다 더 행복감이 높으며, 의사가 느끼는 행복 지표는 사랑, 관계, 그리고 가족을 품고 있어 학업과 성공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행복인식과는 차이를 보인다.¹⁰⁾

일반적으로 인간이 삶에 대해 지니는 태도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삶의 의미를 결정하게 되는데, 의과대학생의 행복에 대한 인식은 의료의 정체감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과대학생 개개인이 갖는 행복 인식은 미래에 행복한 의사로서의 행복 지표를 정립하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이란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말로서 사람마

다 다른 개인적인 감정이므로 개인의 행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측면보다는 주관성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¹¹⁾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Q방법론을 적용하여 행복에 대한 의과대학생의 인식 유형과 그 유형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의과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13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와 개별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법을 이용하였다. 그 중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 3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자료 수집

1) Q모집단 및 Q표본의 구성

Q모집단(Q-Population)은 대구 지역의 의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행복에 관한 인식 구성에 대한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관련문헌 고찰과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개별 심층면담을 수행하

5) 김충수. 시험 스트레스가 의대생의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1994 : 4-21.

6) Roh MS, Jeon HJ, Kim HN, et al. Factors influencing treatment for depression among medical students: a nationwide sample in South Korea, Med Edu 2009 ; 43(2) : 133-139.

7) McManus IC, Iqbal S, Chandrarajan A, et al. Unhappiness and dissatisfaction in doctors cannot be predicted by selectors from medical school application forms: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BMC Med Educ 2005 ; 5 : 1-7.

8) 한의령, 정은경, 오선아 등.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유급 또는 휴학 경험정도과 관련 요인. 한국의학교육학회지 2012 ; 24(3) : 233-240.

9) Shin HI, Jeon WT. "I'm not happy, but I don't care": help-seeking behavior, academic difficulties, and happiness. Korean J Med Educ 2011 ; 23(1) : 7-14.

10) van Dongen CM, van der Graaf Y. The happy doctor. Ned Tijdschr Geneesk 2012 ; 156(51) : A5847.

11) Diener E, Oishi S, Lucas RE. Personality, cultural,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 Rev Psychology 2003 ; 54 : 403-425.

<Table 1> Distribution of Q-sample Card

	(Disagree)				(Neutral)			(Agree)	
Score	-4	-3	-2	-1	0	+1	+2	+3	+4
No. of card	2	3	4	5	6	5	4	3	2

였다.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은 대구 지역의 의과대학생 40명을 편의 추출하여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었으며 행복에 관한 질문 항목은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바탕으로 하였다. 질문내용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 실제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4문항이 포함되었다.

수집된 개방형 질문지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개방형 질문지에 덧붙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개별면담을 수행하였다. 개별면담은 연구자가 대구 지역의 의과대학생 5명을 임의 추출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수행되었다. 면담 내용은 위에 언급된 질문을 포함하여 행복과 관련된 여러 요인으로 개인 내적 요인, 대인 관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학습활동과 지지 요인 등이었다. 이 외에도 행복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전문서적, 국내외 저널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합하여 총 138개의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Q표본의 선정에 위하여 준비된 Q모집단을 놓고 행복에 대한 인식이 범주화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교수 1인과 Q방법론 전문가 1인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34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2) P표본(P-sample)의 표집

Q방법론은 양적 연구와는 달리 사람이 변인이 되고 항목이 표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P표본이 커지면 한 인자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이 왜곡된다. 이를 소 표본이론이라 하는데 보통 Q표본의 진술문 수와 비슷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 지역 의학과 학생 38명으로 구성하였다.¹²⁾

3) Q표본 분류(Q-sorting)

Q표본의 분포도는 연구대상자들이 Q표본으로 선정된 34개의 진술문들을 자신의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상에 분류하여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 분포시키는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준비하였다. Q표본 분류는 Q표본을 먼저 읽은 후 긍정(+), 중립(0), 부정(-)의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 긍정(부정)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부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 (+4, -4)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케 하여 중립부분(0)에서 마무리하게 하였다. 이때 양끝에 놓인 2개씩의 진술문 4개에 대한 선택 이유를 면담을 통해 받아두었다<표 1>.

Q분류과정 전에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 기록하게 하였고 한 사람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는 20~30분이 소요되었다. 코딩은 가장 반대하는 경우를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인 경우 5점, 가장

12) 김홍규.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113-118.

찬성하는 경우에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PC-QUANL 프로그램(Van Tubergen, Iowa University, IA, USA)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34개의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를 구하였다. 그 후 다시 34개의 항목을 P표본을 축으로 하는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하였다. 유형은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산출된 결과 중 최선이라고 판단된 것을 선택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에 들어가기 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수행하였다(CR-13-058-L). 참여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구두동의를 얻었다. 면담 내용에 대한 익명성 보장과 연구결과가 출판된다는 점,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정체감이 드러나지 않도록 컴퓨터 파일에는 연구자 고유의 비밀 번호를 부여하고 참여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삭제하였다.

III. 결과

1. Q유형의 형성

PC-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행복에 대한 주관성을 Q요인 분석한 결

<Table 2> Eigen Values,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Type 1	Type 2	Type 3
Eigen value	9.4750	4.1646	3.0150
Variance (%)	23.69	10.41	7.54
Cumulative (%)	23.69	34.10	41.64

과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요인은 전체변량의 41.6%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전체 변량이 작은 것은 대상자 의견의 다양성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Q연구에서는 주요인 견해만을 다루는 것을 연구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변량의 크기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각 유형별 변량은 제1유형이 23.7%, 2유형이 10.4%, 3유형이 7.5%였다. 제1유형이 23.7%의 설명력을 가지므로 행복에 관한 대상자의 인식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표 2, 3>.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아 각 유형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었으며 진술문 표본 및 유형별 표준점수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유형별 특성과 해석

연구대상자의 구성은 제1유형이 15명, 2유형 10명, 그리고 3유형 13명의 총 3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factor weight)가 가장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prototype)인 사람으로 그 유형을 대표함을 의미한다<표 3>.

행복의 인식에 관한 주관성은 각 대상자들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고, 개별 진술항목

<Table 3> Types, Weigh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s

Type	Subject's No.	Factor weight score	Sex	Age (yr)	Satisfaction of pocket money	Reason for taking medicine	Academic points	Talking with for future	Future occupation	Personality
1 (n=15)	VAR09	1.9736	Male	24	Satisfied	Success	>80	Friend	Practitioner	Middle
	VAR04	1.8505	Male	26	Satisfied	Success	>70	Senior	Practitioner	Middle
	VAR01	1.3862	Male	26	Unsatisfied	Success	>75	None	Practitioner	Extrovert
	VAR17	0.8094	Male	24	Satisfied	Advice	>70	Senior	Practitioner	Introvert
	VAR38	0.7828	Female	23	Satisfied	Advice	>90	Parents	Professor	Introvert
	VAR11	0.5511	Male	25	Middle	Success	>85	Friend	Professor	Middle
	VAR32	0.5138	Male	27	Satisfied	Success	>70	Senior	Professor	Middle
	VAR33	0.5114	Male	27	Middle	Success	>80	Friend	Practitioner	Introvert
	VAR29	0.3763	Male	25	Satisfied	Success	>70	Parents	Hospital doctor	Middle
	VAR21	0.3011	Male	26	Middle	Success	>80	Professor	Professor	Middle
	VAR37	0.2989	Female	25	Middle	Success	>85	Friend	Professor	Middle
	VAR35	0.2941	Female	26	Middle	Aptitude	>80	Siblings	Hospital doctor	Introvert
	VAR12	0.2603	Male	24	Satisfied	Aptitude	>80	Friend	Practitioner	Middle
	VAR15	0.2436	Male	28	Satisfied	Success	>65	Friend	Practitioner	Extrovert
	VAR22	0.1473	Male	25	Middle	Advice	>65	Senior	Practitioner	Middle

<Table 3> Continued

Type	Subject's No.	Factor weight score	Sex	Age (yr)	Satisfaction of pocket money	Reason for taking medicine	Academic points	Talking with for future	Future occupation	Personality
2 (n=10)	VAR27	1.3461	Male	25	Satisfied	Mission	>85	Pastor	Professor	Middle
	VAR30	0.9062	Male	24	Satisfied	Job	>75	Friend	Professor	Middle
	VAR02	0.8634	Male	25	Middle	Service	>80	Friend	Hospital doctor	Introvert
	VAR07	0.8394	Male	29	Satisfied	Success	>75	Friend	Professor	Extrovert
	VAR19	0.7496	Male	26	Middle	Service	>80	Friend	Professor	Middle
	VAR16	0.7275	Female	25	Middle	Service	>85	Pastor	Society activists	Introvert
	VAR10	0.6068	Male	24	Middle	Worthwhile	>80	Siblings	Professor	Extrovert
	VAR05	0.5813	Female	24	Satisfied	Success	>90	Senior	Professor	Introvert
	VAR23	0.3913	Male	24	Satisfied	Success	>85	Professor	Politician	Extrovert
	VAR24	0.3716	Female	22	Satisfied	Success	>90	Friend	Public official	Introvert
3 (n=13)	VAR08	0.6283	Male	24	Satisfied	Advice	>85	Parents	Practitioner	Middle
	VAR31	0.6163	Male	24	Middle	Job	>80	Friend	Practitioner	Extrovert
	VAR34	0.5663	Male	30	Middle	Success	>80	Friend	Practitioner	Middle
	VAR26	0.4391	Male	23	Unsatisfied	Advice	>85	Friend	Professor	Introvert
	VAR25	0.2615	Male	25	Middle	Service	>80	Pastor	Hospital doctor	Introvert
	VAR14	0.2611	Female	25	Middle	Advice	>85	Professor	Professor	Extrovert
	VAR18	0.2224	Female	24	Middle	Job	>85	Siblings	Hospital doctor	Middle
	VAR20	0.2162	Male	23	Satisfied	Grade	>70	Friend	Suspense	Introvert
	VAR28	0.1930	Female	25	Satisfied	Aptitude	>80	Parents	Professor	Introvert
	VAR13	0.1870	Male	24	Middle	Success	>80	Parents	Hospital doctor	Middle
	VAR03	0.1855	Male	24	Middle	Job	>70	Senior	Professor	Middle
	VAR06	0.1695	Male	25	Satisfied	Job	>80	Friend	Practitioner	Middle
	VAR36	0.1372	Female	24	Satisfied	Success	>85	Parents	Hospital doctor	Middle

<Table 4> Q-samples and Z-scores according to Types

Q-statement	Z-score		
	Type 1 (n=15)	Type 2 (n=10)	Type 3 (n=13)
1. I am happy when travelling.	1.44	1.22	0.10
2. I am happy when I see movies, TV and shows.	0.24	1.17	0.75
3. I am happy when I am moving activities like exercise, hiking, dancing, and driving.	0.04	1.52	-0.08
4. I am happy when shopping.	-1.36	-0.44	0.44
5. I am happy when I do that is difficult to others.	-0.43	-0.17	1.26
6. I am happy at the end of the test.	-0.20	1.39	1.05
7. I am happy when I feel accomplishment and development.	0.85	0.61	1.65
8. I am happy when I have things I want.	-1.12	0.22	0.21
9. I am happy when I learn new things.	-1.60	-0.91	-0.12
10. I am happy when I have enough time.	0.67	-0.39	-0.15
11. I am happy when I have economic margin.	0.08	-0.04	0.45
12. I am happy when I help someone.	-0.65	-1.13	0.44
13. I am happy when I eat delicious food.	0.12	-1.69	0.40
14. I am happy when asleep.	-0.11	-1.52	0.15
15. I am happy when I meet friends.	0.07	-0.83	0.33
16. I am happy when playing with pets.	-2.16	-0.95	-1.64
17. I am happy when I receive praise or interest.	-0.48	-0.26	1.49
18. I am happy when I receive a gift.	-1.07	-1.91	0.35
19. I am happy when recognizing me.	-0.36	-2.08	2.06
20. I am happy when I hear other people's talking.	-1.88	-1.08	-0.52
21. I am happy when I glad someone else or laughing	-0.13	-0.39	0.65
22. I am happy when I am healthy.	1.20	0.17	-0.15
23. I am happy when I get high enough sleep.	1.45	0.17	-0.42
24. I am happy when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1.51	0.56	-1.00
25. I am happy when I met good luck.	0.30	0.74	-0.45
26. I am happy when I see nice scenery or the whether is good.	1.23	0.17	-0.93
27. I am happy when I pray.	-0.90	0.00	-1.92
28. I am happy because I am satisfied myself.	0.60	0.91	-1.81

<Table 4> Continued

Q-statement	Z-score		
	Type 1 (n=15)	Type 2 (n=10)	Type 3 (n=13)
29. I am happy because I have a career and future plan.	0.16	0.09	-1.76
30. I am happy because I am satisfied with my appearance.	-1.00	1.47	-1.48
31. I am happy because I have a family.	1.87	0.78	1.10
32. I am happy because I love someone.	-0.01	1.86	0.26
33. I am happy because I can confide worries.	0.52	1.34	-1.07
34. I am happy when I have the expectative appointment or twelve.	1.09	0.39	0.37

에 대한 특정 유형의 표준점수와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 설명하였다. 또한 Q분류과정 당시 관찰 및 면담한 내용인 양극단의 의견과 인구 사회학적 배경 등을 참조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 분석 방법에 의해 산출된 대상자의 행복 인식에 관한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유형: 안락형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형 1은 총 38명 중 15명으로 의과 대학을 선택한 이유로 ‘성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7%였다. 나이는 25.4세로 그룹 중 가장 많았으며 학교성적은 76.3점으로 그룹 중 가장 낮았고, 미래 직업은 ‘개업의’라고 표현한 사람이 그룹 중 53%로 나타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유형 1이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나는 아무 걱정이 없을 때 행복하다’, ‘나는 폭 자고 일어났을 때 행복하다’, ‘나는 여행을 할 때 행복하다’, ‘나는 날씨가 좋거나 멋진 경치를 볼 때 행복하다’였다. 반면 제1유형이 가장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나는 애완동물과 놀 때 행복하다’,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 줄 때 행복하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행복하다’ 등으로 나타났다<표 5>.

제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나는 아무 걱정이 없을 때 행복하다(Z값=2.05)’, ‘나는 폭 자고 일어났을 때 행복하다(Z값=1.78)’, ‘나는 날씨가 좋거나 멋진 경치를 볼 때 행복하다(Z값=1.28)’였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나는 칭찬이나 관심 받았을 때 행복하다(Z값 차이=-1.48)’,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 줄 때 행복하다(Z값 차이=-1.24)’, ‘나는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해냈을 때 행복하다(Z값 차이=-1.14)’ 순이었다.

유형 1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연구대상자 9번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나는 몸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아 행복하다’, ‘나는 폭 자고 일어났을 때 행복하다’라는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동의를 한 항목은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 줄 때 행복하다’, ‘나는 애완동물과 놀 때 행복하다’였다. 연구대상자 9번은 건강이 모든 행복의 근원으로 아무리 다른 게 있어도 몸이 아프

<Table 5> Descending Array of Z-scores (Greater than ± 1) and Item Descriptions for Each Type (n=38)

Type	Item No.	Q-statement	Z-score
1 (n=15)	24	I am happy when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1.914
	23	I am happy when I get high enough sleep.	1.782
	26	I am happy when I see nice scenery or the whether is good.	1.276
	34	I am happy when I have the expectative appointment or twelve.	1.102
	22	I am happy when I am healthy.	1.033
	1	I am happy when travelling.	1.002
	4	I am happy when shopping.	-1.000
	8	I am happy when I have things I want.	-1.025
	32	I am happy because I love someone.	-1.032
	5	I am happy when I do that is difficult to others.	-1.144
	20	I am happy when I hear other people's talking.	-1.244
	17	I am happy when I receive praise or interest.	-1.483
	2 (n=10)	30	I am happy because I am satisfied with my appearance.
33		I am happy because I can confide worries.	1.733
32		I am happy because I love someone.	1.463
6		I am happy at the end of the test.	1.255
28		I am happy because I am satisfied myself.	1.174
16		I am happy when playing with pets.	1.123
2		I am happy when I see movies, TV, and shows.	1.067
21		I am happy when I glad someone else or laughing.	-1.115
15		I am happy when I meet friends.	-1.130
12		I am happy when I help someone.	-1.345
18		I am happy when I receive a gift.	-1.467
13		I am happy when I eat delicious food.	-1.896
19		I am happy when recognizing me.	-3.192
3 (n=13)	19	I am happy when recognizing me.	2.325
	18	I am happy when I receive a gift.	1.661
	4	I am happy when shopping.	1.490
	5	I am happy when I do that is difficult to others.	1.278
	14	I am happy when asleep.	1.113

<Table 5> Continued

Type	Item No.	Q-statement	Z-score
3 (n=13)	9	I am happy when I learn new things.	1.080
	30	I am happy because I am satisfied with my appearance.	-1.316
	24	I am happy when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1.433
	33	I am happy because I can confide worries.	-1.488
	26	I am happy when I see nice scenery or the whether is good.	-1.606
	27	I am happy when I pray.	-1.708
	29	I am happy because I have a career and future plan.	-2.027
	28	I am happy because I am satisfied myself.	-2.453

고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하였다. 또한 애완동물은 크게 좋아하지 않으며 남의 말을 잘 들어주긴 하지만 행복할 정도는 아니며 너무 길게 들으면 자신도 답답함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신체, 심리, 사회적 안녕을 행복감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표현하였다. 이 그룹은 자신의 건강과 안녕의 소중함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그룹으로 보여 ‘안락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2유형: 자기만족형

유형 2에 속한 대상자는 총 38명 중 10명으로 의과대학을 선택한 이유로 ‘봉사’, ‘선교’, ‘보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0%였다. 나이는 평균 24.8세, 학교성적은 82.5점으로 그룹 중 가장 높았고, 미래 직업은 ‘임상교수’라고 표현한 사람이 60%로 나타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유형 2가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나는 이성과 사랑을 해서 행복하다’, ‘나는 내 외모

에 만족해서 행복하다’, ‘나는 시험이 끝났을 때 행복하다’, ‘나는 고민을 털어 놓을 곳이 있어 행복하다’ 등이었다. 반면 제2유형이 가장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하다’, ‘나는 선물을 받았을 때 행복하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 ‘나는 잠이 들 때 행복하다’로 나타났다<표 5>.

제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해서 행복하다(Z값=2.62)’, ‘나는 고민을 털어 놓을 곳이 있어 행복하다(Z값 차이=1.73)’, ‘나는 이성과 사랑을 해서 행복하다(Z값 차이=1.46)’, ‘나는 시험이 끝났을 때 행복하다(Z값 차이=1.25)’였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하다(Z값 차이=-3.19)’,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Z값 차이=-1.18)’, ‘나는 선물을 받았을 때 행복하다(Z값 차이=-1.47)’로 나타났다.

유형 2에서 인자가중치가 제일 높은 연구대상자 27번이 가장 동의한 항목을 보면 ‘나는 시험이 끝났을 때 행복하다’ ‘나는 이성과 사랑을 해서 행복하다’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동의를 한 항목은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하다’, ‘나는 선물을 받았을 때 행복하다’였다. 연구대상자 27번은 학생으로서 가장 큰 보람은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받을 때 가장 기쁘다고 하였다. 한편 어떤 일이든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건 안 받건 그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젊은 학생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자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자신감을 배양하고, 이성과의 사랑, 학업 등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타인의 인정, 혹은 판단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견해를 보이고 있어 ‘자기만족형’으로 명명하였다.

3) 제3유형: 인정형

유형 3에 속한 대상자는 총 38명 중 13명으로 의과대학을 선택한 이유로 ‘권고’, ‘취업’, ‘성공’, ‘봉사’, ‘성적’, ‘적성’ 등 다양하였다. 나이는 평균 24.6세로 그룹 중 가장 적었으며, 학교성적은 80.3점, 미래 직업은 ‘임상교수’, ‘개업의’, ‘봉직의’가 각각 4명씩 92%를 차지하였고 ‘미정’이 1명으로 나타났다.

유형 3이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하다’, ‘나는 목표를 이루고 성취감과 발전했다고 느낄 때 행복하다’, ‘나는 칭찬이나 관심을 받았을 때 행복하다’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제3유

형이 가장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나는 기도할 때 행복하다’,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하므로 행복하다’, ‘나는 진로나 미래의 계획이 있어서 행복하다’ <표 5>.

제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하다 (Z값 차이=2.32)’, ‘나는 선물을 받았을 때 행복하다 (Z값 차이=1.66)’, ‘나는 쇼핑할 때 행복하다 (Z값 차이=1.49)’, ‘나는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해냈을 때 행복하다 (Z값 차이=1.28)’ 등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하므로 행복하다 (Z값 차이=-2.45)’, ‘나는 진로나 미래의 계획이 있어서 행복하다 (Z값 차이=-2.03)’, ‘나는 기도할 때 행복하다 (Z값 차이=-1.71)’, ‘나는 날씨가 좋거나 멋진 경치를 볼 때 행복하다 (Z값 차이=-1.61)’ 순이었다.

유형 3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연구대상자 8번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하다’, ‘나는 기대되는 약속이나 일이 있을 때 행복하다’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동의를 한 항목은 ‘나는 진로나 미래의 계획이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고민을 털어 놓을 곳이 있어 행복하다’였다. 8번 대상자는 내가 누군가로 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가만히 있기만 해도 벅차고 행복할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 막연함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3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그룹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그룹으로 타인의 관심과 칭찬에 삶의 무게를 두는 반면 미래의 계획을 설계하기 위한 자신감이나 지지 기

반은 약한 것으로 생각되어 ‘인정형’으로 명명하였다.

IV. 고찰

행복에 관한 의과대학생의 인식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본 연구결과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은 안락형, 자기만족형, 인정형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1유형은 의과대학생의 행복태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타입으로 이들은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에 비해 외부의 인정이나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신의 육체적, 심리적 편안함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학과 학생들이 일반학생에 비해 과도한 학업 비중과 의과대학의 위계적 환경 등에 의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지적한 연구와 비슷하다.¹³⁾ 제1유형의 진술에서 아무 걱정이 없고, 폭 자고 일어날 때, 여행하고 멋진 경치를 볼 때 행복하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1유형의 대상자들이 신체, 심리, 사회적 안녕을 행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학과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문제 중심과 회피 전략으로 밝혀졌는데, 본 연구 대상자들은 수면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보이기도 하고, 수면으로 문제 상황을 피하거나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양극단의 대처방식을 동시에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¹⁴⁾ 이러한 제1유형의 양면적인 선택은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반면 신체적 안락함과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스 대응 방안은 불안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제1유형이 의과대학생의 행복태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수면, 휴식, 여행과 같은 여가활동의 기회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교과 외 학습이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삶의 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반응은 미래에 행복한 의사로서의 직업적 인간성과 연결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제2유형은 자기만족형으로 이 그룹에 속한 대상자들은 외모에 비중을 두고 이성과의 사랑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거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타인에게 보이는 신체적 이미지에 민감하여 외모가 자아개념과 행복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진다.¹⁵⁾ 그러나 제2유형의 대상자들은 외모에 비중을 두나,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다른 연구에서도 내적 자아를 추구하는 조건이 많을수록 낙관적이며 자신감 있고 평안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결과는 유형 2의 행복인식을 일부 지지하고 있다.¹⁶⁾ 이와 같이 긍정적 감정과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즐거운 삶과 연관되며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삶의 환경이나 조건의 차

13) Roh MS, Jeon HJ, Kim HN, et al. 위의 글(주6). 133-139.

14) 고진경, 윤태영, 박재현.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의과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학교육 2007 ; 19(3) : 225-233.

15) 조계화, 김영경. 간호학생이 소그룹 콜라지 작업을 통해 구성한 행복의 의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0 ; 16(1) : 61-71.

16) 박정현, 서은국. 사람의 내-외적인 모습에 두는 상대적 비중과 행복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005 ; 19(4) : 19-31.

이는 행복의 수준을 단 10%밖에 좌우하지 못한다고 하였다.¹⁷⁾ 즉 부(富), 건강, 외모, 지위 등의 여건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2유형의 행복 인식을 지지하였으며 객관적 삶의 조건이 높아진다고 반드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이 성인자아기능이 높은 반면 양육적 어머니 자아기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칫 인간미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아상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감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제2유형의 행복 인식에 대한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보완이 필요하다.¹⁸⁾

제3유형은 인정형으로 이 그룹에 속한 대상자들은 타인에게 인정이나 선물을 받을 때,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해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이 달성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로 그에 대한 몰입이 발생하고, 과제가 도전적일 때, 개인이 능력을 확장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끔 하는 에너지를 발생한다고 보고된 연구는 유형 3의 행복 인식을 지지하고 있다.¹⁹⁾

어떤 일을 성취한 후의 행복감은 인간의 성장욕구를 자극하여 더욱 큰 성취와 인정을 바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유형 3은 자신의 능력과 일을 통해 개인적 성장을 추구할수록 행복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20대 젊은 층의 행복 인식에는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²⁰⁾ 행복의 의미는 타인으로부터의 칭찬이나 인정,

선물 등 일상의 소소한 것, 주위에 늘 가까이 있는 것으로서 마음속에 내재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나라 오는 것이라고 밝힌 연구와 유사하다.²¹⁾

본 연구의 의의는 의과대학생의 행복에 관한 인식 유형을 밝힘으로써 의학 교육과정 안에 행복 개념의 도입과 인문학적 융합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해 준 점에 있다. 비록 경제적 수준, 외모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의과대학생들의 행복 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나 자기만족과 내적 가치체계를 통해 행복 인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의학교육 내용에 의료전문직과 인간의 행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창조적 활동 과정을 통해 체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의 행복에 대한 인식유형을 통해 그들의 행복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요인들 파악하고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학교육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1유형은 ‘안락형’으로 자신의 건강과 안녕의 소중함을 표출하였고 제2유형은 ‘자기만족형’으로 있는 그대로의 긍정적 자아 인식을 통한 만족감을 드러내었으며 제3유형은 ‘인정형’으로 성취를 통한 타인의 인정에서 행복감과 에너지를 얻는 유형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의과대학생들의 행복 인식은 개인적 배경과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었으므로 다양한 활동을 통한 행복감 증대 방안이 요구된다. 향후 의과대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안에 행복 개념을 적용할 때에는 본

17) Diener E, Suh E, Lucas R, et al. 위의 글(주1), 276-302.

18) 윤소정, 박귀화. 의과대학생들의 자아 상태 및 삶의 자세와 공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09 ; 16(7) : 51-74.

19) 한성열. 삶의 질과 내재적 동기의 실현.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지 1995 ; 2(1) : 95.

20) 김명소, 임지영.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분석: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심리학회지 2003 ; 8(1) : 83-97.

21) 조계화, 김영경. 위의 글(주 15). 61-71.

연구에서 도출된 3가지 유형의 특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연구대상자의 분포가 일개 대학에 국한된 점으로, 추후에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

색인어

행복, 인식, 의과대학생

Perception of Happiness among Medical Students: Q Methodological Approach

KIM Gyun-Moo*, JO Kae-Hwa**

Abstract

Happines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lues or goals in life. Stress is one of the factors that can negatively affect levels of happiness, and medical students can experience high levels of stress during their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happiness among medical students. The study used Q-methodology, which provides a method of analyzing the subjectivity of each item. Thirty-four selected Q-statements from each of 34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a normal distribution using a 9-point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PC-QUANL program. Three types of perception of happiness were identified in the subjects: 'comfort' (15 persons), 'self-satisfaction' (10 persons), and 'accomplishment' (13 persons). When there are programs offering opportunities for leisure activities, such as rest and travel, medical students' levels of satisfaction go up.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we suggest that the concept of happiness should perhaps be included in the medical curriculum.

Keywords

happiness, perception, medical students

*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chool of Medicine: Corresponding Author

**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